

朝鮮時代 密教經典의 刊行에 대한 연구

A Study on the Publication of
Esoteric Buddhist Sutras in the Joseon Dynasty

禹 秦 雄 (Woo, Jin-Woong)*

◁ 목 차 ▷

- | | |
|----------------------|------------------------|
| 1. 서 언 | 5. 조선시대 밀교경전의 간행 시기 분석 |
| 2. 밀교경전의 전래와 유통 | 6. 조선시대 밀교경전의 간행 지처 분석 |
| 3. 조선시대 간행된 진언·다라니경류 | 7. 결 언 |
| 4. 조선시대 간행된 의식집 | <참고문헌> |

< 초 록 >

조선시대의 불교는 억불정책으로 많은 탄압을 받았지만 밀교적 신앙만은 배척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신봉하였으며, 이에 따라 불교의식집을 비롯하여 진언·다라니경과 같은 많은 밀교경전이 간행되었다. 이 연구는 조선시대 간행된 밀교경전을 개괄하고, 현존 자료를 통해 밀교경전의 주제별, 시기별, 지역별 간행에 대해 분석한 것이다.

불교의식집의 주제별 분포를 보면 水陸齋, 日常儀禮, 獻供儀式, 預修齋 관련 경전이 비교적 많고, 시대별로 보면 16-17세기의 판본이 가장 많으며, 그 중 선조-숙종조에 간행된 수록제 관련 경전이 비교적 많다. 지역별로는 경상·전라지역의 판본이 전체 의식집의 약 65%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대부분이 목판본이지만 중앙의 활자로도 인출되었고, 왕실 발원관 및 간경도감판도 다수 확인되어 조선시대에는 억불 상황에서도 밀교를 깊이 신봉하였고, 이에 따라 밀교경전이 중요시되었음을 보여준다.

要語: 密教, 密教經典, 儀式集, 佛教儀式集, 眞言, 陀羅尼經

* 慶北大學校 嶺南文化研究院(jwoong78@naver.com)

접수일: 2011년 9월 8일 최초심사일: 2011년 9월 10일 심사완료일: 2011년 9월 19일

<ABSTRACT>

In the Joseon dynasty, Buddhism was very suppressed, but esoteric Buddhism was exceptionally treated so as to be more followed, and various ritual books, Holy words(眞言), and Dharani scriptures(陀羅尼經) were published. In this study, the publications of esoteric Buddhist Sutras in the Joseon dynasty are summarized. In addition, by the examination of existing sutras, we analyzed the trend in their thematic, periodic and regional distributions.

When we examine the thematic distribution of Buddhist ritual books, most materials are related to Sooryuk-jae(水陸齋), daily rituals, offering ritual to Buddha, and Yeosoo-jae(豫修齋). In periodic distribution of Sutras, publications between the 16th and 17th century were dominant, especially during the reign of King Seon-jo and King Sook-jong were most prevalent one with the theme of Sooryuk-jae.

In regional distribution of Sutras, Kyungsang and Jeolla provinces were noticeable with the ratio of 65%. Also their publishing methods were mainly by woodblock print, and partially by movable wooden types or metal types. Another noteworthy fact is that despite suppression of Buddhism, esoteric Buddhism was strongly followed and sponsored by people, especially Royal families. It is well evidenced that many esoteric Buddhist Sutras were published with the financial support of those Royal families, and by the Gangyungdogam.

Key words: Esoteric buddhism, Sutra of esoteric buddhism, ritual book, Buddhist ritual books, Holy words, Dharani scriptures

1. 서 언

‘密敎’는 글자 그대로 풀이하면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다. 즉 佛敎의 다른 교설들이 모두 드러내어 說하며 가르치는 顯敎인데 비해 密敎는 드러내지 않는 비밀스러운 가르침이라는 것이다.

密敎의 수행법은 ‘三密’이라 불리는 ‘身口意’이다. 이것은 손으로 手印을 맺는 身密, 입으로 眞言을 외는 口密, 마음으로 불보살의 尊像을 바라보는 意密을 나타내며, 밀교경전에는 이러한 요소들이 포함되어 있다.

불교는 삼국시대에 중국에서 우리나라로 처음 전래되어 숭불정책을 실시한 고려시대에는 잦은 외침으로 인한 정치·사회적인 혼란을 해결하는 수단으로 밀교가 널리 인식되었기 때문에 밀교적 신앙이 성행했던 시기였다. 밀교는 고려 시대에 잠시 정체성이 약해지기도 했으나 그 신앙만은 널리 보급되어 재난, 재해, 질병퇴치, 국가나 개인의 안녕과 명복을 위한 각종 불교의식이 시행되었고, 이에 따라 많은 밀교경전이 보급되었다.

조선시대에는 숭유정책으로 인해 불교가 전반적으로 탄압받았으나 집권 초부터 정권 교체시 희생된 고려 왕족들을 천도하기 위해 국가 주최의 불교의식이 시행되었고, 이후 다양한 불교의식이 전국 각지에서 행해졌다.

이러한 불교의식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의식의 내용과 방법·절차를 알려주는 의식집이 필요하였기에 각종 불교의식집을 비롯하여 진언·다라니경과 같은 많은 밀교경전이 간행되었고, 다양한 종류의 밀교경전과 판본이 전해지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조선시대에 간행된 밀교경전에 대해 개괄하고, 현존 자료를 통하여 주제별, 시기별, 지역별 간행에 대하여 분석하고자 한다.

2. 밀교경전의 전래와 유통

2.1 밀교의 한국 전래

2.1.1 三國時代

우리나라 최초의 불교는 小獸林王 2年(372)에 前秦王 苻堅이 使節과 僧 順道를 고구려에 보내 佛像·經文을 전한 것¹⁾에서 시작되어 枕流王 元年(384) 9월에 胡僧 摩羅難陀가 晋에서 와서 禮敬한 기록,²⁾ 同王 2年 2월에 漢山에 佛寺를 세워 僧侶를 두었다는 기록³⁾에서 초기불교의 일면이 확인된다.

고구려에 있어서는 熊女가 매일 呪願하여 桓雄이 남자의 몸으로 되었다는 기록,⁴⁾ 10월에 祭天하여 國中에 大會하였는데 이를 東盟이라 하였으며, 그 나라의 동쪽에 隨穴이라는 大穴이 있어서 隨神을 맞이하여 祭祀를 드리고, 靈星과 社稷을 모셨다는 기록⁵⁾ 등을 통해 고구려 이전에도 주술신앙적 측면에서 밀교적 신앙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백제 역시 帛尸梨密多의 『孔雀王神呪經』, 『佛說灌頂經』 등의 다라니경이 인도로부터 동진을 거쳐 백제에 온 摩羅難陀에 의해 전래되었을 것이다.⁶⁾

우리나라의 불교는 일본으로 전파되어 일본으로 간 스님 중에는 密呪에 능한 僧이 많았고, 특히 威德王 24年(577)에는 백제에서 經, 論, 律師, 禪師, 比丘尼, 佛工, 呪禁師 등을 보내어 개인의 禳災超福이나 祈福의 차원에서 행하였으리라

1) 『三國遺事』 興法編 卷第3. “小獸林王即位二年壬申乃東晉咸安二年孝武帝即位之年也前秦苻堅遣使及僧順道送佛像經文.”

2) 『三國遺事』 興法編 卷第3. “沈流王即位甲申胡僧摩羅難陀自晋迎置宮中禮敬.”

3) 『三國史記』 卷第24 百濟本紀 第2. “二年春二月創佛寺於漢山度僧十人冬十一月王薨.”

4) 『三國遺事』 紀異編 卷第1 古朝鮮條. “熊女者無與爲婚故每於壇樹下呪願有孕雄乃假化而婚之孕生子號曰壇君王儉.”

5) 『三國史記』 卷第32 雜誌 第1. “後漢書云高句麗好祀鬼神社稷零星以十月祭天大會名曰東盟其國東有大穴號隨神亦以十月迎而祭之.”

6) 全東赫, “密敎의 受用과 그것의 韓國的 展開(1),” 『中央僧家大學』 第2輯(1993), 15-16.

집작할 수 있다.⁷⁾

신라시대의 밀교는 『海東高僧傳』 卷2에 의하면 眞平王 27年(605)에 처음으로西域僧인 北天竺 烏長國의 毘摩羅眞諦, 農伽陀, 摩豆羅國의 佛陀僧伽 등이 皇龍寺에 머물며 『梅檀香火星光妙女經』을 번역해 출판하였고, 이는 명칭으로 보아 밀교경전이므로 신라 밀교의 최초 전래는 605년으로 추정된다.⁸⁾

이후 明朗과 惠通은 초기 밀교사상을 수용하였다. 明朗은 唐에 가서 밀교를 공부하여 신라에 귀국 후 金光寺를 세웠고, 神印秘法으로써 나라의 위기를 구하였다.⁹⁾ 惠通 역시 唐으로 가서 無畏三藏에게서 印譯을 받았으며, 唐 高宗(649-683)의 공주가 병을 앓아 치유한 것¹⁰⁾과 같이 밀교사상은 중국으로부터 신라에 수용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8세기에는 중기 밀교, 즉 『大日經』과 『金剛頂經』 계통의 사상을 수용하였다.

2.1.2 高麗時代

고려는 승불정책으로 밀교는 크게 융성하였다. 太祖는 건국 당시 해적이 소란을 피웠으나 光學과 大緣에게 청하여 神印作法으로 물리쳤고, 936년에 現聖寺를 지어 神印宗을 開宗한 것¹¹⁾과 같이 光學과 大緣은 고려에 처음 밀교를 알렸을 것이다. 고려 밀교 중 주목할 것은 계속된 외침과 정치·사회의 전반적인 불안을 극복하기 위해 각종 불교의례가 개설되었다는 점이다.

개설된 많은 종류의 의례들은 대부분 밀교적인 것이었다. 그 중에서 文豆婁道場, 百高座仁王道場, 藏經道場, 金光明道場, 消災道場, 帝釋道場, 摩利支天道

-
- 7) 鄭泰熾, “韓國佛敎의 密敎의 性格에 관한 考察.” 『佛敎學報』 第18輯(1981), 34-35.
 8) 東國大 佛敎文化研究院, 『韓國佛敎思想概觀』 (서울: 韓國言論資料刊行會, 1997), 262-263.
 9) 『三國遺事』 卷第5 神呪 第6 明朗神印條. “高宗聞之赫怒命薛邦興師將討之文武王聞之懼請師開秘法禳之.”
 10) 『三國遺事』 卷第5 神呪 第6 惠通降龍條. “唐室有公主疾病高宗請救於三藏舉通自代通受敎別處以白豆一斗呪銀器中變白甲神兵逐崇不克又以黑豆一斗咒金器中變黑甲神兵令二色合逐之忽有蛟龍走出疾遂瘳.”
 11) 『三國遺事』 卷第5 神呪 第6 明朗神印條. “太祖爲創現聖寺爲一宗根柢焉.”

場, 佛頂道場, 龍王道場, 四天王道場, 藥師道場 등은 모두 밀교의 의례작법이고, 이후 행해진 연등회, 팔관회 등도 밀교적 성격을 강하게 띤 것이다.¹²⁾

밀교신앙이 더욱 극진했던 고려 후기에는 왕위 즉위식도 密敎儀軌의 전통적 방법에 따라 거행한 경우도 있었다. 고려 초기의 밀교에 대한 깊은 관심과 돈독한 신앙은 후대로 내려올수록 그 신앙의 심도는 더 깊어지게 되었다.¹³⁾ 이처럼 고려 시대에는 밀교에 대한 깊은 신앙심으로 많은 의례들이 개최되었고, 이에 따라 밀교관련 경전도 많이 유통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2.1.3 朝鮮時代

조선은 불교를 통치이념으로 한 고려와는 달리 불교는 탄압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밀교는 이러한 정치적 상황 속에서도 다른 종단에 비해 발전하였다. 이는 억불 상황에서도 유교적 이념만으로 여러 문제를 극복할 수 없었기에 밀교에 대한 신앙적 의존도가 높았기 때문이다. 또한 고려시대와 같이 많은 밀교의식들이 개설되었고, 이러한 의식의 내용과 방법, 절차를 이해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의식집이나 진언·다라니경의 간행이 빈번하였다.

2.2 신라시대 밀교경전의 전래

신라시대에는 「大日經」, 「金剛頂經」, 「蘇悉地經」, 「灌頂經」, 「金光明經」, 「般若理趣經」, 「仁王經」, 「隨求陀羅尼經」, 「無垢淨光大陀羅尼經」, 「破地獄三種悉地眞言儀軌」, 「占察經」, 「發菩提心論」, 「藥師經」, 「十一面觀音經」, 「千手觀音經」 등의 밀교경전이 여러 학승들에 의해 중국으로부터 전래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를 바탕으로 많은 연구서가 만들어졌다.

「三國史記」와 「三國遺事」에 수록된 밀교경전에 대한 주요 기록을 보면, 「仁

12) 金賢南, “韓國密敎 研究의 現況과 課題,” 『韓國宗教史 研究』 第6輯(1996), 20-23.

13) 東國大 佛敎文化研究院, 『韓國佛敎思想概觀』, 280-281.

王經」은 “王이 병이 들자 皇龍寺에 百高座를 베풀어 승려를 모아 『仁王經』을 講讀하였다”는 기록,¹⁴⁾ 『隨求陀羅尼經』은 “寶川이 隨求陀羅尼를 誦하면서 매일의 課業으로 삼았다”는 기록,¹⁵⁾ 『占察經』은 “眞表가 開元 28年(740) 靈山寺에 있을 때 彌勒이 나타나 『占察經』 2卷을 주었는데, 이 經이 지금 처음으로 나타난 것은 아니다”는 기록,¹⁶⁾ 『藥師經』은 “善德王(632-647 在位)이 병으로 앓았을 때 密本法師가 『藥師經』을 읽어 나았다”는 기록,¹⁷⁾ 『十一面觀音經』은 “神文王(681-692 在位)이 즉위하면서 國師로 삼은 憬興이 병을 앓았을 때 十一面觀音이 應現하여 병을 낫게 하였으며, 南巷寺에 十一面圓通像의 탕화가 있었다”는 기록,¹⁸⁾ 『千手觀音經』은 景德王(742-765 在位) 때 “女人 希明이 芬皇寺의 千手大悲像 壁畫에 빌어서 아들의 눈을 뜨게 하였다”는 기록¹⁹⁾ 등에서 신라시대 밀교신앙과 밀교경전의 보급 사례를 확인할 수 있다.

이 외에도 불교의 융성과 중국과의 교류로 다양한 밀교경전이 신라에 전래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 『無垢淨光大陀羅尼經』 외에 현존 판본은 없다.

2.3 고려시대 밀교경전의 유통

고려시대에는 다양한 밀교경전이 간행·유통되었고, 이는 현존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표 1>과 같이 11-13세기에는 『寶篋印陀羅尼經』, 『梵書摠持

-
- 14) 『三國史記』 卷第5 新羅本紀 第5. “王疾醫禱無効於皇龍寺設百高座集僧講仁王經.”
 - 15)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臺山五萬眞身條. “寶川常汲服其靈洞之水故晚年肉身飛空到流沙江外蔚珍國掌天窟停止誦隨求陀羅尼日夕爲課.”
 - 16) 『三國遺事』 卷第4 義解 第5 眞表傳簡條. “感彌力現授占察經兩卷 此經乃陳隋間外國所譯 非今始出也.”
 - 17) 『三國遺事』 卷第5 神呪 第6 密本摧邪條. “善德王德曼邁疾彌留有興輪寺僧法愴應詔侍疾久而無效時有密本法師以德行聞於國左右請代之王詔迎入內本在宸仗外讀藥師經卷軸纒周所持六環飛入寢內刺一老狐與法愴倒擲庭下王疾乃瘳.”
 - 18) 『三國遺事』 卷第5 感通 第7 憬興遇聖條. “師之病不覺洒然尼遂出門乃入南巷寺(寺在三郎寺南)而隱所將杖子在幀畫十一面圓通像前.”
 - 19) 『三國遺事』 卷第3, 塔像 第4, 芬皇寺千手大悲 盲兒得眼. “景德王代漢歧里女希明之兒生五稔而忽盲一日其母抱兒詣芬皇寺左殿北壁畫千手大悲前令兒作歌禱之遂得明.”

集」, 『楞嚴經』 등이 간행되었고, 13세기에는 崔忠憲 一族에 의한 밀교경전의 간행이 주목된다. 또한 초조 및 재조대장경에도 많은 밀교경전이 포함되어 밀교가 성행하였음을 알 수 있다. 고려시대에는 국내외적인 혼란을 극복하기 위해 해법을 밀교에서 찾으려 했기에 많은 밀교경전이 간행되었다.

<표 1> 고려시대 간행 밀교경전(*: 現存 經板)

간행시기		경전명	간행시기	경전명
穆宗	1(1007)	寶篋印陀羅尼經(摠持寺)	忠宣王 元(1309)	楞嚴經(棺板)
靖宗	11(1050)	佛說解百生寃結陀羅尼經(金[之成])	忠肅王	3(1316)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邊山)
	1011~1088	初雕大藏經		15(1328) 密教大藏經 130卷(官版)
肅宗	6(1102)	藥師琉璃光如來本願功德經(教藏都監)	忠肅王	17(1330) 佛頂尊勝陀羅尼經(寶城寺)
	10(1150)	梵書摠持集(廣濟鋪)		17(1330)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傘蓋摠持(寶城寺)
毅宗	20(1166)	大毘盧遮那成佛經等一代聖教中無上一乘諸經所說一切陀羅尼經(李世陝)	忠惠王	3(1342)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棺板)
	熙宗 2年 - 高宗 6年	佛頂心觀世音菩薩大陀羅尼經(崔忠憲 一族)	恭愍王	1(1352)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高宗	5(1218)	梵書摠持集(開泰寺)		1(1352)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棺板)
	15(1228)	梵書摠持集(崔忠憲 一族)	14(1365)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傘蓋摠持(見岩寺)	
	22(1235)	楞嚴經(崔瑀 發願)	19(1370) 楞嚴經(居士 林桂)	
	22(1235)	楞嚴經*(崔瑀 發願)	21(1372) 楞嚴經(靑龍寺)	
	23(1236)	佛說梵釋四天王陀羅尼經*(海印寺)	禡王	1(1375) 正本一切如來大佛頂白傘蓋摠持(無爲菴)
	28(1241)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崔怡 發願)		2(1376)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33(1246)	佛說預修十往生七經*		4(1378)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
	1236~1251	再雕大藏經	[高麗末]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中峯庵)
忠烈王	元(1275)	不空絹索神變眞言經(寫經院)	[高麗末]	佛說天尊却癩瘡神呪經
	4(1278)	佛說長壽減罪護諸童子陀羅尼經(新荷寺)	[高麗末]	佛說天尊却癩瘡神呪經

간행시기	경전명	간행시기	경전명
忠烈王	4(1278)	佛說長壽滅罪護諸童子陀羅尼經*(新荷寺)	[高麗末] 大佛頂陀羅尼
	8(1282)	慈悲道場儀法(李德孫發願)	[高麗末] 佛說預修十王生七經 2種*
	18(1292)	寶篋印陀羅尼經(棺板)	[1306年 以前] 佛頂心呪經
	19(1293)	大悲心陀羅尼經(仁興寺)	

3. 조선시대 간행된 진언·다라니경류²⁰⁾

3.1 진언집류

진언집류는 「諸眞言集」, 「五大眞言」, 「眞言要抄」, 「觀世音菩薩靈驗略抄」,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楞嚴經」, 「七大萬法」, 「佛說天地八陽神呪經」, 「佛說天尊却癩瘡神呪經」 등이 있다.

「諸眞言集」과 「五大眞言」²¹⁾은 16-18세기 간행된 판본이 많으며, 「眞言要抄」²²⁾는 佛岩寺版이 전해진다. 「觀世音菩薩靈驗略抄」²³⁾는 주로 18세기에 간행된 6종,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²⁴⁾은 5종이 확인된다.

기타 「七大萬法」과 전염병을 퇴치하는 내용의 「佛說天尊却癩瘡神呪經」의 진언집도 간행되었다. 「楞嚴經」은 諺解本을 포함하여 30여종 이상이 전해지고, 「佛說天地八陽神呪經」은 16세기부터 간행되어 판본의 수도 많다.

20) 선행연구와 목록 등을 참고·보완하여 개괄적으로 살펴보았다. 眞言, 陀羅尼經류와 儀式集이 일부 중복되는 경전도 있다.

21) ‘四十二手眞言’, ‘神妙章句大陀羅尼’, ‘隨求即得陀羅尼’, ‘大佛頂陀羅尼’, ‘佛頂尊勝陀羅尼’의 다섯 가지 진언을 모은 경전.

22) 여러 陀羅尼經에 나타나는 한자음역의 진언을 모아 한글 음역을 덧붙인 경전.

23) 觀世音菩薩의 功德과 大悲心陀羅尼의 靈驗, 讀誦을 권장, ‘畫千手’라고도 함.

24) 六字大明呪에 의지하여 지송하고 禪定을 닦아 福德을 얻고, 解脫을 얻을 수 있음을 강조한 경전.

3.2 다라니경류

다라니경류는 「隨求成就陀羅尼經」,²⁵⁾ 「佛說地心陀羅尼經」, 「佛頂心陀羅尼經」, 「大悲心陀羅尼經」, 「光明王如來陀羅尼經」, 「長壽經」 등이 확인된다.

「長壽經」은 언해본을 포함해 25종 이상이 간행되었고, 「佛頂心陀羅尼經」²⁶⁾은 왕실발원을 비롯하여 解脫菴, 熊岾寺, 奉佛庵, 梵魚寺, 新光寺 등에서 간행되었다.

기타 「大悲心陀羅尼經」,²⁷⁾ 「佛說地心陀羅尼經」,²⁸⁾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²⁹⁾ 「隨求成就陀羅尼經」³⁰⁾이 확인된다.

<표 2> 조선시대 간행된 진언·다라니경류(15종 97판본)

경전명		간행처 및 간행시기
眞 言 集 類	諸眞言集	安心寺(1569), 神興寺(1658), 佛影臺(1688), 萬淵寺(1777), 望月寺(1800)
	五大眞言	圓通菴(1484), 王室發願(1485), 鐵窟(1531), 深源寺(1535), 龍泉寺(1538), 哲菴(1550), 雙溪寺(1634)
	眞言要抄	佛岩寺(1795, 1797)
	觀世音菩薩靈驗略抄	甘路寺(1716), 證心寺(1721), 釋王寺(1728), 普賢寺(1728), 神光寺(1732), 伽倻寺(1762)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肅川府(1560), 鷲岩寺(1568), 伽倻寺(1621), 1567年版, 1908年版
	楞嚴經	漢文: 1401年, 花岩寺(1433), 花岩寺(1433), 無量寺(1488), 慈悲嶺寺(1489), 無量寺(1493), 石頭寺(1547), 星宿寺(1559), 松廣寺(1609), 圓寂寺(1609), 龍藏寺(1635), 雲興寺(1672), 普賢寺(1682), 龍興寺(1692), 諺解: 乙亥字(1461), 刊經都監(1462)

25) 원서명은 ‘佛說金剛頂瑜伽最勝秘密成佛隨求即得神變加持成就陀羅尼經’이다.

26) 佛頂心陀羅尼經의 신통력과 영험함을 보여주는 경전.

27) 千手觀音의 공덕에 대한 찬탄과 三昧에 대한 경전으로, 원서명은 ‘佛說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經’이다.

28) 부처님이 땅의 이치에 관해 설법한 경전.

29) 卷首題는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이나 ‘佛頂心觀世音菩薩陀羅尼’ - ‘법화영험’ - ‘妙法蓮華經心’ - ‘大乘妙法蓮華經’이 합綴되어 있다.

30) 不空(唐) 翻譯의 隨求陀羅尼를 범어, 언문, 한자로 기록함.

경전명		간행처 및 간행시기
眞 言 集 類	七大萬法	叱方寺版(1569)
	天地八陽神呪經	神興寺(1549), 松廣寺(1609), 楞伽寺(1657), 天冠寺(1657), 鳳停寺(1769), 靑岩寺(1789), 松廣寺(1791), 佛巖寺(1797), 佛巖寺(1799), 熊神寺(1807), 修道庵(1833), 石臺庵(1839), 奉恩寺(1856), 磧川寺(1861), 佛巖寺(1881), 姜在喜 施主(1908)
	天尊却瘟瘧神呪經	1908年版
陀 羅 尼 經 類	隨求成就陀羅尼經	雙溪寺(1569), 普賢寺(1729), 普光寺(1869)
	佛說地心陀羅尼經	神興寺(1670), 肝月寺(1673)
	佛頂心陀羅尼經	王室發願(1485), 解脫菴(1561), 熊帖寺(1570), 奉佛庵(1631), 梵魚寺(1642), 新光寺(1711), 寶晶寺(1876), 三聖菴(1881)
	大悲心陀羅尼經	圓通庵(1484), 雲門寺(1746), 奉恩寺(1857), 寶石寺(1881)
	光明王如來陀羅尼經	國師庵(1903)
	長壽經	李安吉, 權機, 宋元吉, 大禪師 洪因 發願 施主(1416), 長佛寺(1420), 王室發願(1432), 閏筆菴(1441), 花巖寺(1443), 止觀寺(1446), 圓岩(1452), 中臺寺(1460), 萬魚寺(1468), 花巖寺(1484), 龍井寺(1486), 首庇寺(1488), 慈悲嶺寺(1495), 深源寺(1536), 俱衆寺(1562), 廣興寺(1562), 天冠寺(1568), 松方寺(1569), 興福寺(1573), 龍門寺(1629), 華巖寺(1699), 大茆寺(1730), 松廣寺(1768), 佛岩寺(1796), 普賢寺(1887)

4. 조선시대 간행된 의식집

‘佛敎儀式集’의 분류 기준에 따라 다르다. 여기서는 儀式禮에 따른 분류³¹⁾에 의거하여 살펴보았다.

4.1 日常儀禮

僧家에서의 일상이나 의례를 전하는 의식이 수록된 것으로, 『僧家日用食時默

31) 儀式禮에 따른 분류(正覺, “靈光 佛甲寺 佛腹藏 儀式關係 典籍,” 『書誌學報』 第35輯(2010), 259)는 14항목(日常儀禮, 獻供儀式, 禮懺法, 說禪儀式, 放生儀式, 受戒儀式, 誦呪儀式, 水陸齋, 預修齋, 腹藏儀式, 梵唄儀式, 齋儀式, 茶毘禮, 喪禮)으로 나누어져 있다.

言作法」, 「中峰和尚三時繫念儀範文」, 「禮念往生文」이 포함된다.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³²⁾은 20종 이상의 판본이 전해지며, 기타 「中峰和尚三時繫念儀範文」,³³⁾ 「禮念往生文」도 간행되었다.

<표 3> 日常儀禮類 경전

경전명	간행처 및 간행시기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20)	玉泉寺(1496), 鐵窟(1531), 安心寺(1569), 無爲寺(1572), 法泉寺(1573), 龍泉寺(1576), 開興寺(1652), 雲門寺(1659), 仙巖寺(1661), 神興寺(1666), 雲興寺(1680), 靈臺(1680), 仙巖寺(1696), 龍門寺(1704), 靈覺寺(1720), 明寂寺(1827), 兜率庵(1869), 兜率庵(1882), 磧川寺[甲午], 仙巖寺[乙亥], 龍興寺[己未]
中峰和尚三時繫念儀範文(1)	未詳(1706)
禮念往生文(1)	未詳

4.2 獻供儀式

獻供儀式은 佛菩薩 및 神衆에게 齋供을 올리는데 사용하는 의식으로, 「三門直指」, 「禪門綱要集」, 「禪門三家拈頌集」, 「禪門撮要」, 「念佛普勸文」, 「念佛作法」, 「雲水壇誦詞」, 「雲水壇作法」, 「雲水壇儀文」, 「仔變刪補文」, 「作法龜鑑」, 「諸般文」, 「請文」 등이 포함된다.

「三門直指」는 英祖 45年(1769)에 편찬된 것으로, 念佛門-圓頓門-徑截門로 나누어져 있다. 「禪門綱要集」³⁴⁾은 中宗 26年(1531) 鐵窟, 「禪門三家拈頌集」³⁵⁾은 世祖 10年(1464) 刊經都監에서 간행되었다. 「禪門撮要」³⁶⁾는 雲門寺(1907),

32) 齋食時 행법 내지 의식문과 의례를 수록한 책으로,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食堂作法」, 「食時四物緣起」, 「食堂先後作法切磋」를 담고 있다.

33) 中峰和尚(1263-1323)이 찬술한 三時念佛의 의식과 절차에 관한 것으로, 阿彌陀佛을 念하여 極樂往生을 기원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34) 고려 후기의 僧 天頤이 禪門 五宗의 요점을 밝힌 경전.

35) 고려 慧謙이 편찬한 「禪門拈頌集」 30卷 중에서 龜庵이 6卷으로 편집한 高宗 33年(1246)에 간행한 판본을 底本으로 하였다.

梵魚寺(1908)에서 나누어 간행되었고, 『念佛普勸文』은 肅宗 30年(1704) 明衍이 편찬한 언해본으로, 이후 6종 이상 간행되었다.

『雲水壇誦詞』³⁷⁾는 雲門寺, 松廣寺 등에서 간행된 18종 이상이 확인되며, 『雲水壇作法』³⁸⁾ 『雲水壇儀文』³⁹⁾도 간행되었다.

『仔夔刪補文』은 水陸齋에 대한 의식문을刪補한 것으로, 廣興寺(1568), 通度寺(1649)에서 간행되었다. 『作法龜鑑』은 純祖 26年(1826) 모든 의식 작법의 要目を 모아 白波 巨璇(1767-1852)에 의해 편찬된 것으로, ‘三寶通請’ 및 ‘焚修作法’과 ‘下壇灌浴規’에 밀교적 부분을 찾아볼 수 있다.⁴⁰⁾

『諸般文』은 사찰에서 행하는 諸般 의식집을 모아 편찬한 책으로, ‘勸供諸般文’이라 불리며 『請文』과 유사한 내용을 담는 경향이 보인다.⁴¹⁾ 『請文』⁴²⁾은 16-18 세기에 간행된 10종 이상이 확인되며, 『念佛作法』은 염불에 대한 의식집으로 4종이 확인된다.

<표 4> 獻供儀式類 경진

경진명	간행처 및 간행시기
三門直指(1)	隱寂寺(1769)
禪門綱要集(1)	鐵窟(1531)
禪門三家拈頌集(1)	刊經都監(1464)
禪門撮要(2)	雲門寺(1907), 梵魚寺(1908)
念佛普勸文(6)	龍門寺(1704), 修道寺(1741), 桐華寺(1764), 興栗寺(1765), 海印寺(1776), 禪雲寺(1787)

36) 休靜이 역대 여러 禪師들의 가르침을 모은 경진.

37) 조선 중기 淸虛 休靜이 이전의 『眞言勸供』, 『天地冥陽水陸齋儀』 등의 三壇獻供 부분을 재편찬한 것으로, 諸佛菩薩, 諸大聖衆 등을 請하여 獻供하는 내용의 경진.

38) 淸虛 休靜이 撰述한 『雲水壇誦詞』와 懶菴 眞一이 撰述한 『釋門家禮抄』를 합하여 편찬한 경진.

39) 懶菴 眞一이 撰述한 『釋門家禮抄』에서 필요한 부분만 뽑아 정리한 경진.

40) 正覺, 『千手經 研究』(서울: 운주사, 1997), 104.

41) 正覺, “靈光 佛甲寺 佛腹藏 儀式關係 典籍,” 268-269.

42) 『諸般文』과 유사한 내용을 담고 있는 경진으로, 현재 사찰에서 행해지는 거의 모든 의례를 수록하고 있다.

경전명	간행처 및 간행시기
念佛作法(3)	開天寺(1572), 龍泉寺(1575), 靈光地 隨緣寺(1628)
雲水壇誦詞(18)	雲門寺(1588), 松廣寺(1607), 盤龍寺(1627), 龍腹寺(1632), 松廣寺(1636), 證心寺(1636), 般若庵(1639), 大原寺(1639), 鳳停寺(1643), 龍興寺(1644), 普賢寺(1647), 開興寺(1651), 栖鳳寺(1656, 1659), 開寺壇(1659), 表訓寺(1662), [妙]香山(1680), 海印寺(1719)
雲水壇作法(1)	海印寺(1664)
雲水壇儀文(1)	[留鎮香山](1732)
仔變刪補文(2)	鶴駕山 廣興寺(1568), 通度寺(1649)
作法龜鑑(1)	雲門庵(1827)
諸般文(12)	普願寺(1566), 法興寺(1568), 釋王寺(1574), 龍泉寺(1576), 瑞峰寺(1580), 普賢寺(1647), 鳳岩寺(1658), 龍興寺(1691), 金山寺(1694), 甘露寺(1702), 海印寺(1719), 海印寺(1883)
請文(10)	靈覺寺(1535), 德周寺(1540), 實相寺(1610), 通度寺(1639), 開興寺(1652), 神興寺(1670), 龍興寺(1681), 海印寺(1719), 普賢寺(1729), 鳳停寺(1769)

4.3 禮懺法

佛菩薩 앞에서懺悔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觀音靈課』, 『妙法蓮華經三昧懺法』,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禪門祖師禮懺儀文』, 『禮念彌陀道場懺法』, 『禮懺佛號』, 『龍舒增廣淨土門』, 『現行西方經』이 포함된다.

『觀音靈課』는 觀世音菩薩에게 기원하여 점괘를 뽑아吉凶을 짐치는 불교占書로, 18세기 무렵 求禮 華嚴寺에서 간행되었고, 『妙法蓮華經三昧懺法』⁴³⁾은 仁粹大妃가 發願하여 成宗 3年(1472)에 간행되었다.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은 간경도감판과 왕실발원판(1474) 등이 전해지며, 이후 판본은 대부분 왕실발원판의 번각본이다. 『禪門祖師禮懺儀文』⁴⁴⁾은 夫人寺, 甘露寺에서 간행되었다. 『禮念彌陀道場懺法』⁴⁵⁾은 간경도감판(1474) 이후 海印

43) 『妙法蓮華經』을 禮佛하고 佛經을 읽으며 죄를懺悔하는 것으로, 義天이 중국에서 들여와 널리 전파하여 고려말까지 성행하였다.

44) 인도, 중국, 우리나라의 禪門祖師 43인에 대한 禮懺文을 모은 경전.

寺, 松廣寺에서 간행되었고, 『現行西方經』⁴⁶⁾은 直旨寺(1448), 七佛寺(1531), 神光寺(1556), 雙溪寺(1710)에서 간행되었다. 기타 桐華寺版 『禮懺佛號』(1736), 雲門寺版 『龍舒增廣淨土門』(1796)이 전해진다.

<표 5> 禮懺法類 경전

경전명	간행처 및 간행시기
觀音靈課(1)	華嚴寺(18世紀)
妙法蓮華經三昧懺法(1)	王室發願(1472)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3)	刊經都監(1462), 王室發願(1474), 鳳停寺(1769)
禪門祖師禮懺儀文(2)	夫人寺(1660), 甘露寺(1666)
禮念彌陀道場懺法(6)	王室發願(1474), 海印寺(1503), 毗盧寺(1572), 海印寺(1576), 松廣寺(1607), 長壽佛堂(1610)
現行西方經(4)	直旨寺(1448), 七佛寺(1531), 神光寺(1556), 雙溪寺(1710)
禮懺佛號(1)	桐華寺(1736)
龍舒增廣淨土門(1)	雲門寺(1799)

4.4 說禪儀式

『說禪儀』는 禪을 說할 때의 의식 절차를 밝힌 내용으로, 龍腹寺에서 간행되었고,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은 水月道場에서 空花佛事하는 如幻한 賓主가 꿈에 문답한 것을 쓴 책으로 海印寺, 華嚴寺에서 간행되었다.

4.5 放生儀式

放生할 때 그 의식절차를 밝히는 내용으로, 『戒殺放生文』이 포함된다. 1892년에 刊각한 것을 1908년에 姜在喜의 施主로 간행되었다.

45) 禮念文과 懺法을 集成, 彌陀道場에서의 懺法節次를 수록한 의식집으로, 阿彌陀佛에 대한 禮拜와 懺悔, 極樂往生을 기원하며 阿彌陀佛을 禮懺하는 내용 및 의식절차를 담고 있다.

46) 高麗僧 元岳이 忠烈王 24年(1298)에 저술한 淨土往生을 지향하는 수행의식집.

4.6 受戒儀式

진정한 佛者가 되기 위해 戒를 받을 때 사용하는 의식문으로, 望月精舍版 『七衆受戒儀軌』,⁴⁷⁾ 海印寺版 『受菩薩戒法』이 확인된다.

4.7 誦呪儀式

佛者들이 외위야 할 불교의 偈頌 陀羅尼가 있는 의식문으로, 『觀世音菩薩靈驗略抄』, 『五大眞言』, 『諸眞言集』, 『准提淨業』, 『眞言勸供』, 『密教開刊集』이 있다.⁴⁸⁾ 『眞言勸供』은 施食 공양 등 일상 法事의 절차를 기록한 것으로, 燕山君 2年(1496)에 印經木活字로 인출되었고, 『密教開刊集』은 正祖 8年(1784) 修道庵에서 간행된 것으로, 『諸眞言集』과 같은 내용으로 보이나 내용과 배열순서 등에 있어 차이가 있다.⁴⁹⁾

<표 6> 誦呪儀式類 경전

경전명	간행처 및 간행시기
觀世音菩薩靈驗略抄(6)	甘路寺(1716), 證心寺(1721), 釋王寺(1728), 普賢寺(1728), 神光寺(1732), 伽倻寺(1762)
五大眞言(5)	圓通菴(1484), 王室發願(1485), 鐵窟(1531), 哲菴(1550), 雙溪寺(1634)
諸眞言集(5)	安心寺(1569), 神興寺(1658), 佛影臺(1688), 萬淵寺(1777), 望月寺(1800)
眞言勸供(1)	王室發願(1496)
密教開刊集(1)	雙溪寺 修道庵(1784)
准提淨業(1)	華嚴寺(1724)

47) 受戒儀式의 절차를 유형별로 수록하여 불자들이 수행정도에 따라 지켜야 할 戒律을 밝힌 수계의식집.

48) 일부경전은 眞言·陀羅尼經類과 중복된다.

49) 東國大學校 佛教文化研究所, 『眞言·儀式關係 佛書展觀目錄』, 1976, 23.

4.8 水陸齋

水陸齋는 ‘水陸無遮平等齋’의 약칭으로 가장 널리 시행한 불교의식이다. 관련 경전으로 『天地冥陽水陸雜文』,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 『仔夔文節次條例』, 『天地冥陽水陸儀文』, 『水陸儀文撮要』 등이 있다.

『天地冥陽水陸雜文』은 印經木活字로 인출한 王室發願版(1496), 松廣寺版, 無爲寺版 등이 전해지고,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와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⁵⁰⁾는 의식집 중 가장 많은 판본이 전해진다.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⁵¹⁾은 道林寺版, 重興寺版이 있으며,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⁵²⁾는 無量寺, 廣興寺, 普院寺 등에서 간행되었다. 기타 『仔夔文節次條例』, 『天地冥陽水陸儀文』, 『水陸儀文撮要』는 水陸齋의 기존 내용에 변형하여 편찬한 것이다.

<표 7> 水陸齋類 경전

경전명	간행처 및 간행시기
天地冥陽水陸雜文(6)	印經木活字(1496), 松廣寺(1531), 無爲寺(1572), 講堂寺(1581), 龍腹寺(1635), 道岬寺(165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29)	大光寺(1513), 雲門寺(1515), 無量寺(1529), 靈覺寺(1536), 廣興寺(1538), 小馬寺(1540), 雙峯寺(1562), 普願寺(1566), 普門寺(1568), 無爲寺(1571), 空林寺(1573), 松廣寺(1574), 海印寺(1581), 龍泉寺(1593), 能仁菴(1604), 甲寺(1607), 水巖寺(1631), 大興寺(1634), 龍藏寺(1635), 松廣寺(1635), 萬淵寺(1640), 松廣寺(1642), 通度寺(1648), 開興寺(1651), 開心寺(1658), 栖鳳寺(1659), 興國寺(1660), 神興寺(1661), 海印寺(1694)

50) 水陸齋의 기원과 의식절차를 집성한 것으로, 땅 위의 아귀와 음계의 亡魂에게 재식을 올리는 총 54개의 의식문으로 구성되어 있다.

51) 3卷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水陸에서 해매는 靈魂과 餓鬼를 위로하기 위하여 불법을 강설하고, 水陸齋 때 사용되는 의식과 절차에 관한 것들을 모은 경전.

52) 水陸齋의 의식과 절차를 기록한 것으로, 주로 亡者의 영혼 천도를 위한 것이다.

경전명	간행처 및 간행시기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43)	見性寺(1470), 中臺寺(1483), 法興寺(1488), 慈悲嶺寺(1490), 無量寺(1498), 大光寺(1514), 無量寺(1529), 公山本寺(1532), 文殊寺(1533), 公山本寺(1535), 靈覺寺(1536), 廣興寺(1538), 石頭寺(1559), 深谷寺(1561), 普院寺(1566), 普門寺(1568), 靈德寺(1569), 無爲寺(1571), 德周寺(1573), 毗盧寺(1573), 雙溪寺(1574), 松廣寺(1574), 瑞峯寺(1581), 佛峯庵(1586), 能仁庵(1604), 岬寺(1622), 水岩寺(1631), 大興寺(1634), 兜率庵(1635), 龍藏寺(1635), 松廣寺(1635), 回龍寺(1636), 甘露寺(1638), 海印寺(1641), 通度寺(1648), 開興寺(1651), 栖鳳寺(1659), 興國寺(1660), 神興寺(1661), 佛岩寺(1673), 普賢寺(1688), 海印寺(1694, 1724)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3)	道林寺(1709), 重興寺(1721), 道林寺(1739)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7)	金守溫 跋文(1470), 無量寺(1498), 廣興寺(1563), 普院寺(1565), 空林寺(1573), 龍藏寺(1632), 通度寺(1649)
仔變文節次條例	海印寺(1724)
天地冥陽水陸儀文	松廣寺(1533)
水陸儀文撮要	未詳(1670)

4.9 預修齋

預修齋는 死後를 생각하여 冥府의 十代王과 眷屬들에게 미리 齋를 올리고 자신의 명복을 스스로 닦는 것으로, 『佛說預修十王生七經』, 『佛說壽生經』,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 『一判集』이 포함된다.

『佛說預修十王生七經』은 ‘十王經’으로도 불리며, 預修齋 과정을 나타낸 경전으로,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⁵³⁾과 더불어 조선시대에 비교적 많이 간행되었다. 『一判集』은 불교의례에 대한 비판과 함께 새로운 정비가 시도되는 추세에 기존의 의식집을 새롭게 하였다.

53) 『佛說預修十王生七經』에 근거하여 조선 중기 大興寺의 7대 禪宗인 松堂大愚가 찬하였으며, 현재 행해지는 預修齋의 지침서가 되는 경전.

<표 8> 預修齋類 경전

경전명	간행처 및 간행시기
佛說預修十王生七經(14)	天明寺(1454), 安心寺(1469), 廣德寺(1564), 興栗寺(1574), 佛岬寺(1575), 東鶴寺(1577), 普門寺(1581), 瑞峯寺(1601), 松廣寺(1618), 花岩寺(1618), 證心寺(1641), 普賢寺(1687), 華嚴寺(1718), 靈覺寺(1720)
預修十王生七齋儀纂要(16)	靈泉寺(1566), 松廣寺(1574), 廣興寺(1576), 普願寺(1577), 龍復寺(1632), 水巖寺(1632), 月精寺(1639), 松廣寺(1647), 道岬寺(1655), 表訓寺(1662), 開興寺(1662), 興國寺(1663), 定慧寺(1663), 岬寺(1670), 普賢寺(1680), 清溪寺(未詳)
一判集(1)	未詳

4.10 腹藏儀式

腹藏儀式 관련 경전인 「造像經」은 僧 知濯이 찬집하였다. 사리, 다라니, 경전 등을 佛塔에 奉安하는 의식과 절차가 수록되어 있으며, 龍泉寺, 楞伽寺, 華莊寺, 金龍寺, 楡岾寺에서 간행된 판본이 확인된다.

4.11 梵唄儀式

梵唄는 齋를 지낼 때 사용하는 음악적 의식으로 ‘魚山’이라고도 하며, 「刪補梵音集」과 「五種梵音集」이 있다. 「刪補梵音集」은 普賢寺, 「五種梵音集」은 護國寺와 石南寺에서 간행되었다.

4.12 齋儀式

齋儀式과 관련된 것으로는 「靈山大會作法節次」, 「作法節次」, 「大刹四明日靈魂施食儀文(施食儀文)」, 「增修禪敎施食儀文」이 포함된다. 「靈山大會作法節次」는 靈山大法會의 의식절차를 수록한 것으로, 安興寺, 龍腹寺에서 간행되었다. 「作法節次」⁵⁴⁾는 17세기에 간행된 것으로 추정되는 1종이 전해진다. 「大刹四明日靈魂

施食儀文(施食儀文)」은 寺刹에서 四明日⁵⁵⁾에 祭享을 드리는 내용이 수록된 의식문으로, 海印寺, 普賢寺에서 간행되었다.

<표 9> 齋儀式類 경전

경전명	간행처 및 간행시기
靈山大會作法節次(2)	安興寺(1613), 龍腹寺(1634)
作法節次(1)	未詳
大刹四明日靈魂施食儀文(2)	海印寺(1695), 普賢寺(1733)
增修禪教施食儀文(1)	未詳

4.13 茶毘禮

‘茶毘’는 시신을 화장한다는 뜻이다. 『茶毘文』은 죽은 사람의 屍多林에서부터 五方散骨⁵⁶⁾까지의 의식문으로, 文殊寺, 佛影臺, 海印寺에서 간행되었다.

4.14 喪禮

상례의 각종 절차와 방법을 기록한 것으로, 『釋門家禮抄』, 『釋門喪儀抄』, 『僧家禮儀文』, 『屍多林作作文』, 『臨終正念訣』이 포함된다.

『釋門家禮抄』⁵⁷⁾는 裴珊瑚에 의해 간행된 판본, 通度寺版이 확인되며, 『釋門喪儀抄』는 상례의 일반에 관한 의식과 의식문을 모은 것으로, 大興寺, 證光寺, 證光寺에서 간행되었다. 『僧家禮儀文』은 『釋門家禮抄』에서 필요한 것을 뽑아 재정리

54) 불교 제반의식 중 齋儀式과 관련된 내용만을 수록한 것으로, ‘作法節次’, ‘靈山會’, ‘中禮文’, ‘志磐文’, ‘結手文’, ‘預修文’ 등을 수록하고 있으며, 卷首題인 ‘作法節次’가 일반적인 서명으로 불리고 있다.

55) 佛誕日, 成道日, 涅槃日, 百中日.

56) 화장 뒤 남은 유골을 오방에 뿌림.

57) 眞一이 불교의식 중 吉禮에 관한 것은 많으나 凶禮에 관한 것은 많지 않아 喪禮에 대한 禮文을 여러 책을 참조하여 편찬하였다.

한 것으로, 岬寺, 通度寺, 宝林寺 등에서 간행되었고, 기타 『屍多林作法文』, 『臨終正念訣』이 확인된다.

<표 10> 喪禮類 경전

경전명	간행처 및 간행시기
釋門家禮抄(2)	裊珊瑚(1660), 通度寺(1670)
釋門喪儀抄(3)	大興寺(1656), 證光寺(1657), 證光寺(1705)
僧家禮儀文(4)	岬寺(1669), 通度寺(1670), 宝林寺(1682), 玉泉寺(1694)
屍多林作法文(1)	雲門寺(1588)
臨終正念訣(1)	修道寺(1741)

이상 조선시대 간행된 불교의식집(277종)을 주제별로 보면 <표 11>과 같이 水陸齋, 日常儀禮, 獻供儀式 관련 경전이 비교적 많다. 이것은 사찰에서 행해진 가장 정례적·일상적인 의식이었고, 이에 따라 의식의 방법과 절차가 담긴 경전의 간행·보급이 많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표 11> 전체 불교의식집의 주제별 판본수(비율)

日常儀禮	獻供儀式	禮懺法	說禪儀式	放生儀式	受戒儀式	誦呪儀式
22(8%)	59(21.3%)	19(7.2%)	3(1.1%)	1(0.4%)	3(1.1%)	19(6.9%)
水陸齋	預修齋	腹藏儀式	梵唄儀式	齋儀式	茶毘禮	喪禮
91(32.5%)	31(11.2%)	5(1.8%)	3(1.1%)	6(2.2%)	4(1.4%)	11(4%)

5. 조선시대 밀교경전의 간행시기 분석

5.1 진언·다라니경

조선시대에 간행된 진언·다라니경류(97종)는 15세기 25종, 16세기 21종, 17세기 19종, 18세기 16종, 19세기 이후 16종이 확인된다.

15-16세기에는 「楞嚴經」, 「長壽經」, 「佛頂心陀羅尼經」이 자주 간행되었으며, 왕조별로는 世宗朝 7종, 成宗朝 10종, 明宗朝 9종, 宣祖朝 8종이 확인되어 조선초 억불치하에도 불구하고 진언·다라니경이 계속해서 간행된 것을 알 수 있다. 이후 17-18세기에도 「諸眞言集」, 「觀世音菩薩靈驗略抄」, 「佛說天地八陽神呪經」, 「楞嚴經」, 「佛頂心陀羅尼經」 등이 활발히 간행되었다.

<표 12> 조선시대 간행된 진언·다라니경

世紀	在位王	간행시기·경전명(간행처)
15 世紀	太宗(2)	1(1401)楞嚴經, 16(1416)長壽經(未詳)
	世宗(7)	2(1420)長壽經(長佛寺), 14(1432)長壽經(王室發願), 15(1433)楞嚴經(花岩寺), 23(1441)長壽經(閔筆菴), 25(1443)楞嚴經(花岩寺), 25(1443)長壽經(華嚴寺), 28(1446)長壽經(止觀寺)
	文宗(1)	2(1452)長壽經(圓岩)
	世祖(4)	6(1460)長壽經(中臺寺), 7(1461)楞嚴經諺解(乙亥字), 8(1462)楞嚴經諺解(刊經都監), 14(1468)長壽經(萬魚寺)
	成宗(10)	15(1484)長壽經(花巖寺), 15(1484)五大眞言(圓通菴), 15(1484)大悲心陀羅尼經(圓通庵), 16(1485)五大眞言·佛頂心陀羅尼經(王室發願), 17(1486)長壽經(龍井寺), 19(1488)長壽經(首庇寺), 19(1488)楞嚴經(無量寺), 20(1489)楞嚴經(慈悲嶺寺), 24(1493)楞嚴經(無量寺)
	燕山君	1(1495)長壽經(慈悲嶺寺)
16 世紀	中宗(4)	26(1531)五大眞言(鐵掘), 30(1535)五大眞言(深源寺), 31(1536)長壽經(深源寺), 33(1538)五大眞言(龍泉寺)
	明宗(9)	2(1547)楞嚴經(石頭寺), 4(1549)佛說天地八陽神呪經(神興寺), 5(1550)五大眞言(哲菴), 14(1559)楞嚴經(星宿寺), 15(1560)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肅川府館北), 16(1561)佛頂心陀羅尼經(解脫庵), 17(1562)長壽經(俱衆寺), 17(1562)長壽經(廣興寺), 22(1567)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未詳)
	宣祖(8)	1(1568)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鶯岩寺), 1(1568)長壽經(天冠寺), 2(1569)諸眞言集(安心寺), 2(1569)隨求成就陀羅尼經(雙溪寺), 2(1569)長壽經(松方寺), 2(1569)七大萬法(叱方寺), 3(1570)佛頂心陀羅尼經(熊帖寺), 6(1573)長壽經(興福寺)
17 世紀	光海君(4)	1(1609)佛說天地八陽神呪經(松廣寺), 1(1609)楞嚴經(松廣寺), 1(1609)楞嚴經(圓寂寺), 13(1621)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伽倻寺)
	仁祖(5)	7(1629)長壽經(龍門寺), 9(1631)佛頂心陀羅尼經(奉佛庵), 12(1634)五大眞言(雙溪寺), 13(1635)楞嚴經(龍藏寺), 20(1642)佛頂心陀羅尼經(梵魚寺)
	孝宗(3)	8(1657)佛說天地八陽神呪經(楞伽寺), 8(1657)佛說天地八陽神呪經(天冠寺), 9(1658)諸眞言集(神興寺)
	顯宗(3)	11(1670)佛說地心陀羅尼經(神興寺), 13(1672)楞嚴經(雲興寺), 14(1673)佛說地心陀羅尼經(肝月寺)
	肅宗(4)	8(1682)楞嚴經(普賢寺), 14(1688)諸眞言集(佛影臺), 18(1692)楞嚴經(龍興寺), 25(1699)長壽經(華嚴寺)

朝鮮時代 密敎經典의 刊行에 대한 연구

世紀	在位王	간행시기·경전명(간행처)
18 世紀	肅宗(2)	37(1711)佛頂心陀羅尼經(新光寺), 42(1716)觀世音菩薩靈驗略抄經(甘路寺)
	景宗(1)	1(1721)觀世音菩薩靈驗略抄經(證心寺)
	英祖(8)	4(1728)觀世音菩薩靈驗略抄經(釋王寺), 4(1728)觀世音菩薩靈驗略抄經(普賢寺), 5(1729)隨求成就陀羅尼經(普賢寺), 6(1730)長壽經(大菴寺), 8(1732)觀世音菩薩靈驗略抄經(神光寺), 22(1746)大悲心陀羅尼經經(雲門寺), 38(1762)觀世音菩薩靈驗略抄經(伽倻寺), 44(1768)長壽經經(松廣寺)
	正祖(5)	1(1777)諸眞言集(萬淵寺), 19(1795)眞言要抄經(佛岩寺), 20(1796)長壽經經(佛岩寺), 21(1797)眞言要抄經(佛岩寺), 24(1800)眞言集經(望月寺)
19 世紀 後	純祖(2)	7(1807)佛說天地八陽神呪經(熊神寺), 33(1833)佛說天地八陽神呪經(修道庵)
	憲宗(1)	5(1839)佛說天地八陽神呪經(石臺庵)
	哲宗(3)	7(1856)佛說天地八陽神呪經(奉恩寺), 8(1857)大悲心陀羅尼經(奉恩寺), 12(1861)佛說天地八陽神呪經(磧川寺)
	高宗(6)	6(1869)隨求成就陀羅尼經(普光寺), 13(1876)佛頂心陀羅尼經(寶晶寺), 18(1881)佛頂心陀羅尼經(三聖菴), 18(1881)大悲心陀羅尼經(寶石寺), 18(1881)佛說天地八陽神呪經(佛巖寺), 24(1887)長壽經(普賢寺)
	기타(4)	1903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國師庵), 1908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佛說天地八陽神呪經·佛說天尊却瘟瘡神呪經(姜在喜)

5.2 불교의식집

불교의식집 273종⁵⁸⁾은 15세기 20종, 16세기 78종, 17세기 114종, 18세기 49종, 19세기 이후 12종이 확인된다.

5.2.1 15세기

世宗朝에는 「現行西方經」, 端宗-睿宗朝에는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刊經都監版), 「佛說預修十生七經」, 「禪門三家拈誦集」이 간행되었다.

成宗朝에는 「妙法蓮華經三昧懺法」,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 「禮念彌陀道場懺法」, 「五大眞言」이 간행되었는데, 이는 왕실의 발원에 의해서이다. 또한 이 시기에는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가 처음 간행되고, 「眞言勸供」과 「天地冥陽

58) 277종 중 간지가 있는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甲午年 磧川寺, 乙亥年 仙巖寺, 己未年 龍興寺) 3종, 조선중기로 추정되는 <禮念往生文> 1종 등의 4종은 제외함.

水陸雜文』은 印經木活字로 인출되었다.

<표 13> 15세기 간행 불교의식집

在位	간행시기·경전명(간행처)
世宗(1)	30(1448) 現行西方經(直旨寺)
端宗(1)	2(1454) 佛說預修十王生七經(天明寺)
世祖(1)	8(1462)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刊經都監), 10(1464) 禪門三家拈誦集(刊經都監)
睿宗(1)	2(1469) 佛說預修十王生七經(安心寺)
成宗(10)	1(1470)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見性寺), 1(1470)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王室發願), 3(1472) 妙法蓮華經三昧懺法(王室發願), 5(1474)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王室發願), 5(1474) 禮念彌陀道場懺法(王室發願), 14(148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中臺寺), 15(1484) 五大眞言(圓通菴), 16(1485) 五大眞言(王室發願), 19(1488)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法興寺), 21(1490)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慈悲嶺寺)
燕山君(5)	2(1496)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玉泉寺), 2(1496) 眞言勸供·天地冥陽水陸雜文(王室發願), 4(1498)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無量寺)

5.2.2 16세기

16세기에는 수록재와 관련된 경전들이 대거 간행되었다. 그 중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가 많이 간행되었다.

<표 14> 16세기 간행 불교의식집

在位	간행시기·경전명(간행처)
燕山君(1)	9(1503) 禮念彌陀道場懺法(海印寺)
中宗(22)	11(151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大光寺), 12(151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大光寺), 13(151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雲門寺), 24(1529)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無量寺), 26(1531)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禪門綱要集·五大眞言(鐵窟), 26(1531) 現行西方經(七佛寺), 26(1531) 天地冥陽水陸雜文(松廣寺), 27(153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公山本寺), 28(153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文殊寺), 28(1533) 天地冥陽水陸儀文(松廣寺), 30(1535) 請文(靈覺寺), 30(1535)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公山本寺), 31(1536)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廣興寺), 33(1538)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廣興寺), 35(1540) 請文(德周寺), 35(1540)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小馬寺), 37(1542) 茶毘文(文殊寺)

在位	간행시기 · 경전명(간행처)
明宗(12)	5(1550)五大眞言(哲菴), 11(1556)現行西方經(神光寺), 14(1559)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石頭寺), 16(1561)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深谷寺), 17(1562)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雙峯寺), 18(1563)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廣興寺), 19(1564)佛說預修十王生七經(廣德寺), 20(1565)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普院寺), 20(1566)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普願寺), 21(1566)諸般文(普願寺), 21(1566)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普願寺), 21(1566)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靈泉寺)
宣祖(42)	1(1568)仔夔刪補文(廣興寺), 1(1568)諸般文(法興寺), 1(1568)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普門寺), 2(1569)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安心寺), 2(1569)諸眞言集(安心寺), 2(1569)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靈德寺), 4(1571)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無爲寺), 4(1571)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無爲寺), 5(1572)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無爲寺), 5(1572)天地冥陽水陸雜文(無爲寺), 5(1572)念佛作法(開天寺), 5(1572)禮念彌陀道場懺法(毘盧寺), 6(1573)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法泉寺), 6(1573)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空林寺), 6(1573)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德周寺), 6(1573)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毗盧寺), 7(1574)諸般文(釋王寺), 7(1574)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松廣寺), 7(1574)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雙溪寺), 7(1574)佛說預修十王生七經(興栗寺), 7(1574)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松廣寺), 8(1575)念佛作法·造像經(龍泉寺), 8(1575)佛說預修十王生七經(佛岬寺), 9(1576)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諸般文(龍泉寺), 9(1576)禮念彌陀道場懺法(海印寺), 9(1576)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廣興寺), 10(1577)佛說預修十王生七經(東鶴寺), 10(1577)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普願寺), 13(1580)諸般文(瑞峰寺), 14(1581)天地冥陽水陸雜文(講堂寺), 14(1581)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海印寺), 14(1581)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瑞峯寺), 14(1581)佛說預修十王生七經(普門寺), 19(1586)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佛峯庵), 21(1588)雲水壇誦詞·屍多林作法文(雲門寺), 26(1593)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龍泉寺)
기타	[16世紀]增修禪敎施食儀文(未詳)

5.2.3 17세기

17세기에는 의식집의 간행이 가장 성행했던 시기로 114종 이상의 판본이 확인된다. 왕조별로 보면 宣祖朝 6종, 光海君朝 6종, 仁祖朝 41종, 孝宗朝 18종, 顯宗朝 23종, 肅宗朝 18종으로, 이 중 수록재 관련 경전이 가장 많고, 기타 獻供儀式, 日常儀禮, 豫修齋 관련 경전도 다수 전해진다. 이처럼 16-17세기⁵⁹⁾에 불교의식집이 집중적으로 간행된 이유는 많은 사찰에서 경전을 간행할 수 있는 여건이 갖추어졌고, 정치사회적 혼란, 질병, 천재지변과 같은 각종 현실 문제를 풀기 위한

59) 왕조별로는 宣祖朝-肅宗朝의 판본이 가장 많다.

많은 의식이 행해져 경전이 필요하였기 때문이다.

<표 15> 17세기 간행 불교의식집

在位	간행시기·경전명(간행처)
宣祖(6)	34(1601)佛說預修十王生七經(瑞峯寺), 37(1604)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能仁菴), 40(1607)雲水壇誦詞·禮念彌陀道場儀法(松廣寺), 40(1607)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甲寺)
光海君(6)	2(1610)請文(實相寺), 2(1610)禮念彌陀道場儀法(長壽佛堂), 5(1613)靈山大會作法節次(安興寺), 10(1618)佛說預修十王生七經(松廣寺), 10(1618)佛說預修十王生七經(花岩寺), 14(1622)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岬寺)
仁祖(41)	[1624]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問答(海印寺), 5(1627)雲水壇誦詞(盤龍寺), 6(1628)念佛作法(隨緣寺), 9(1631)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水岩寺), 10(1632)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雲水壇誦詞(龍腹寺), 10(1632)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水岩寺), 12(1634)設禪儀(龍腹寺), 12(1634)五大眞言(雙溪寺), 12(1634)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大興寺), 12(1634)靈山大會作法節次(龍腹寺), 13(1635)天地冥陽水陸雜文·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龍藏寺), 13(1635)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松廣寺), 13(1635)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兜率庵), 14(1636)雲水壇誦詞(松廣寺), 14(1636)雲水壇誦詞(證心寺), 14(1636)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回龍寺), 16(1638)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甘露寺), 17(1639)雲水壇誦詞(般若庵), 17(1639)雲水壇誦詞(大原寺), 17(1639)請文(通度寺), 17(1639)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月精寺), 18(1640)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萬淵寺), 19(1641)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海印寺), 19(1641)佛說預修十王生七經(證心寺), 20(1642)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松廣寺), 21(1643)雲水壇誦詞(鳳停寺), 22(1644)雲水壇誦詞(龍興寺), 25(1647)雲水壇誦詞·諸般文(普賢寺), 25(1647)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松廣寺), 26(1648)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通度寺), 27(1649)仔瘦刪補文(通度寺), 27(1649)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通度寺)
孝宗(18)	2(1651)雲水壇誦詞·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開興寺), 3(1652)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開興寺), (1652)請文(開興寺), 6(1655)天地冥陽水陸雜文·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道岬寺), 7(1656)雲水壇誦詞(栖鳳寺), 7(1656)釋門喪儀抄(大興寺), 8(1657)釋門喪儀抄(證光寺), 9(1658)諸眞言集(神興寺), 9(1658)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開心寺), 9(1658)諸般文(鳳岩寺), 10(1659)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雲門寺), 10(1659)雲水壇誦詞(棲鳳寺), 10(1659)雲水壇誦詞(開寺壇), 10(1659)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栖鳳寺)
顯宗(23)	1(1660)禪門祖師禮懺儀文(夫人寺), 1(1660)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興國寺), 1(1660)釋門家禮抄(裴珊瑚), 2(1661)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仙巖寺), 2(1661)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神興寺), 2(1661)五種梵音集(護國寺), 3(1662)雲水壇誦詞(表訓寺), 3(1662)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表訓寺), 3(1662)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開興寺), 6(1665)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定慧寺), 5(1664)雲水壇作法(海印寺), 6(1665)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興國寺), 7(1666)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神興寺), 6(1666)禪門祖師禮懺儀文(甘露寺), 10(1669)僧家禮儀文(岬寺), 11(1670)請文(神興寺), 11(1670)水陸儀文撮要(未詳), 11(1670)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岬寺), 11(1670)釋門家禮抄·僧家禮儀文(通度寺), 14(1673)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佛岩寺)

在位	간행시기 · 경전명(간행처)
肅宗(18)	6(1680)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雲興寺), 6(1680)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靈臺), 6(1680)雲水壇誦詞([妙]香山), 6(1680)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普賢寺), 7(1681)請文(龍興寺), 8(1682)僧家禮儀文(寶林寺), 13(1687)佛說預修十王生七經(普賢寺), 14(1688)諸眞言集·茶毘文(佛影臺), 14(1688)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普賢寺), 17(1691)諸般文(龍興寺), 20(1694)諸般文(金山寺), 20(1694)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海印寺), 20(1694)僧家禮儀文(玉泉寺), 21(1695)大刹四明日靈魂施食儀文(海印寺), 22(1696)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仙巖寺), 23(1697)造像經(楞伽寺)
기타(2)	[17世紀]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淸溪寺), [17世紀]作法節次(未詳)

5.2.4 18세기 이후

18세기에 의식집의 간행은 肅宗朝 16종, 景宗朝 6종, 英祖朝 19종, 正祖朝 6종 등 49종이 확인되며, 이전에 비해 전체적인 간행이 감소하였다. 이 시기에는 의식집 간행이 전반적으로 감소하였으나 특히 水陸齋 관련 경전의 간행이 16-17세기보다 현저히 감소하였다. 19세기 이후에는 의식집의 간행이 극히 드물어 純祖朝 3종, 高宗朝 4종만 확인되고,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茶毘文」, 「諸般文」, 「七衆受戒儀軌」, 「禪門撮要」 등이 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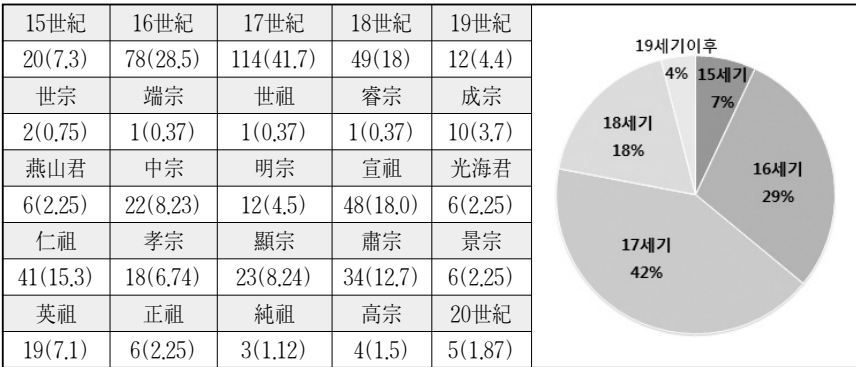
<표 16> 18세기 이후 간행 불교의식집

在位	간행시기 · 경전명(간행처)
肅宗(16)	28(1702)諸般文(甘露寺), 30(1704)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龍門寺), 30(1704)念佛普勸文(龍門寺), 31(1705)釋門喪儀抄(證光寺), 32(1706)中峰和尚三時繫念儀範文(未詳), 35(1709)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道林寺), 36(1710)現行西方經(七佛寺), 39(1713)刪補梵音集(普賢寺), 42(1716)觀世音菩薩靈驗略抄(甘路寺), 44(1718)佛說預修十王生七經(華嚴寺), 45(1719)雲水壇誦詞(海印寺), 45(1719)諸般文(海印寺), 45(1719)茶毘文(海印寺), 46(1720)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靈覺寺), 46(1720)佛說預修十王生七經(靈覺寺), 46(1720)造像經(華莊寺)
景宗(6)	1(1721)觀世音菩薩靈驗略抄(證心寺), 1(1721)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重興寺), [1721]頃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間答(華嚴寺), 4(1724)准提淨業(華嚴寺), 4(1724)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仔變文節次條例(海印寺)
英祖(19)	4(1728)觀世音菩薩靈驗略抄(釋王寺), 4(1728)觀世音菩薩靈驗略抄(普賢寺), 5(1729)請文(普賢寺), 8(1732)雲水壇儀文(妙香山), 8(1732)觀世音菩薩靈驗略抄(神光寺), 9(1733)大刹四明日靈魂施食儀文(普賢寺), 12(1736)禮懺佛號(桐華寺), 15(1739)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道林寺), 16(1740)五種梵音集(石南寺), 17(1741)念佛普勸文(修道寺), 40(1741)臨終正念訣(修道寺), 22(1746)造像經(金龍寺), 38(1762)觀世音菩薩靈驗略抄(伽倻寺), 40(1764)念佛普勸文(桐華寺), 41(1765)念佛普勸文(興栗寺), 45(1769)三門直指(隱寂寺), 45(1769)請文(鳳停寺), 45(1769)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鳳停寺), 52(1776)念佛普勸文(海印寺)

在位	간행시기·경전명(간행처)
正祖(6)	1(1777) 諸眞言集(萬淵寺), 8(1784) 密教開刊集(修道庵), 11(1787) 念佛普勸文(禪雲寺), 21(1797) 受戒菩薩法(碧松庵), 23(1799) 龍舒增廣淨土門(雲門寺), 24(1800) 諸眞言集(望月寺)
純祖(3)	24(1824) 造像經(楡岾寺), 27(1827)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明寂寺), 27(1827) 作法龜鑑(雲門庵)
高宗(4)	6(1869)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兜率庵), 19(1882)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兜率庵), 19(1882) 茶毘文(海印寺), 20(1883) 諸般文(海印寺)
기타(7)	[18世紀] 一判集(未詳), 觀音靈課(華嚴寺) 1901 七衆受戒儀軌(望月精舍), 1907 禪門撮要(雲門寺), 1908 禪門撮要(梵魚寺), 1908 戒殺放生文(姜在喜), 1908 七衆受戒儀軌(海印寺)

이상 조선시대 불교의식집(273종)의 간행을 살펴보면, <표 17>과 같이 시기별로는 16-17세기에 간행된 판본이 약 70%를 차지하며, 전체적으로 조선시대에 간행된 모든 판본 중 이 시기에 간행된 수록재 관련 의식집이 다른 의식집보다 현저히 많았다. 간행 시기가 미상인 5종⁶⁰⁾을 제외한 268종의 왕조별 간행을 보면, 대체로 宣祖朝, 仁祖朝, 肅宗朝의 판본이 가장 많다.

<표 17> 불교의식집의 시기별 판본수(비율)



60) 총 273종 중 세기추정은 가능하나 왕조 추정은 어려운 판본으로, [18세기] 『觀音靈課』, [17세기] 『預修十王七齋儀纂要』, [18세기] 『一判集』, [17세기] 『作法節次』, [16세기] 『增修禪教施食儀文』은 제외함.

6. 조선시대 밀교경전의 간행지처 분석

6.1 진언·다라니경

조선시대 간행된 진언·다라니경(97종) 중 간행지처가 분명한 94종은 왕실발원, 간경도감관을 포함한 경기지역 20종, 강원지역 3종, 충청지역 2종, 경상지역 25종, 전라지역 25종, 북한지역 18종이다.

6.1.1 경기·강원·충청지역

경기지역 간행의 진언·다라니경은 17종이 확인된다. 왕실발원을 비롯하여 佛巖寺, 奉恩寺, 普光寺, 寶晶寺, 三聖菴, 龍門寺, 望月寺 등에서 간행되었다. 20세기초에는 姜在喜에 시주에 의해 간행된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佛說天地八陽神呪經』 등이 보이며, 강원지역은 神興寺, 石壺庵, 충청지역은 伽倻寺, 寶石寺에서 간행되었다.

<표 18> 경기·강원·충청지역에서 간행된 진언·다라니경

刊行地處	刊行時期·經典名
王室發願, 刊經都監(6)	楞嚴經(1401), 長壽經(1432), 五大眞言(1485), 楞嚴經諺解(1461), 楞嚴經諺解(1462), 佛頂心陀羅尼經(1485)
楊州 佛巖寺(4)	眞言要抄(1795), 長壽經(1796), 眞言要抄(1797), 佛說天地八陽神呪經(1881)
廣州 奉恩寺(2)	佛說天地八陽神呪經(1856), 佛說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經(1857)
龍門寺(1)	長壽經(1629)
楊州 望月寺(1)	諸眞言集(1800)
普光寺(1)	隨求成就陀羅尼經(1869)
寶晶寺(1)	佛頂心陀羅尼經(1876)
三聖菴(1)	佛頂心陀羅尼經(1881)
姜在喜(3)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 佛說天地八陽神呪經, 天尊却瘟瘧神呪經(1908)

刊行地處		刊行時期·經典名
江原 (3)	神興寺(2)	諸眞言集(1658), 佛說地心陀羅尼經(1670)
	鐵原 石臺庵(1)	佛說天地八陽神呪經(1839)
忠清 (2)	伽倻寺(1)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1621)
	錦山 寶石寺(1)	佛說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經(1881)

6.1.2 경상·전라지역

경상지역에서는 23개 사찰에서 간행되었다. 圓通菴에서 『五大眞言』·『大
心陀羅尼經』(1484), 雙溪寺에서 『隨求成就陀羅尼經』(1569), 『五大眞言』(1634)
을 비롯하여 止觀寺, 万魚寺, 龍井寺, 首庇寺, 鐵掘, 神興寺, 哲菴, 廣興寺, 梵魚
寺, 甘路寺, 雲門寺, 伽倻寺 등에서 간행되었다.

전라지역에서는 松廣寺, 華巖寺, 天冠寺, 中臺寺, 龍泉寺, 鷺岩寺, 安心寺,
熊帖寺, 楞伽寺, 新光寺, 證心寺 등의 사찰에서 간행된 판본이 확인된다.

<표 19> 경상·전라지역에서 간행된 다라니경

刊行地處		刊行時期·經典名
慶尙道 (25)	圓通菴(2)	五大眞言·佛說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經(1484)
	雙溪寺(2)	隨求成就陀羅尼經(1569)·五大眞言(1634)
	止觀寺(1)	長壽經(1446)
	万魚寺(1)	長壽經(1468)
	龍井寺(1)	長壽經(1486)
	首庇寺(1)	長壽經(1488)
	鐵掘(1)	五大眞言(1531)
	神興寺(1)	佛說天地八陽神呪經(1549)
	哲菴(1)	五大眞言(1550)
	廣興寺(1)	長壽經(1562)
	叱方寺(1)	七大萬法(1569)
	圓寂寺(1)	楞嚴經(1609)
	奉佛庵(1)	佛頂心陀羅尼經(1631)
	梵魚寺(1)	佛頂心陀羅尼經(1642)
	雲興寺(1)	楞嚴經(1672)
	肝月寺(1)	佛說地心陀羅尼經(1673)

刊行地處		刊行時期·經典名
慶尙道 (25)	甘路寺(1)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16)
	雲門寺(1)	佛說千手千眼觀世音菩薩廣大圓滿無碍大悲心陀羅尼經(1746)
	伽倻寺(1)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62)
	熊神寺(1)	佛說天地八陽神呪經(1807)
	修道庵(1)	佛說天地八陽神呪經(1833)
	積川寺(1)	佛說天地八陽神呪經(1861)
	國師庵(1)	佛說大乘聖無量壽決定光明王如來陀羅尼經(1903)
全羅道 (25)	花岩寺(3)	楞嚴經(1433), 楞嚴經(1443), 長壽經(1484)
	松廣寺(3)	楞嚴經·佛說天地八陽神呪經(1609), 長壽經(1768)
	華嚴寺(2)	長壽經(1443), 長壽經(1699)
	無量寺(2)	楞嚴經(1488), 楞嚴經(1493)
	天冠寺(2)	長壽經(1568), 佛說天地八陽神呪經(1657)
	中臺寺(1)	長壽經(1460)
	龍泉寺(1)	五大眞言(1538)
	鷲岩寺(1)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1568)
	安心寺(1)	諸眞言集(1569)
	熊岾寺(1)	佛頂心陀羅尼經(1570)
	興福寺(1)	長壽經(1573)
	龍藏寺(1)	楞嚴經(1635)
	楞伽寺(1)	佛說天地八陽神呪經(1657)
	龍興寺(1)	楞嚴經(1692)
	新光寺(1)	佛頂心陀羅尼經(1711)
	證心寺(1)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1)
大茈寺(1)	長壽經(1730)	
萬淵寺(1)	諸眞言集(1777)	

6.1.3 북한지역

북한지역에서는 평안도 7종, 황해도 10종, 함경도 1종의 19종이 확인되며, 그 중 普賢寺版이 가장 많다. 기타 深源寺, 慈悲嶺寺에서 2종, 閏筆菴, 解脫庵, 佛影臺, 長佛寺, 石頭寺, 星宿寺, 神光寺, 釋王寺 간행의 판본도 확인된다.

<표 20> 북한지역에서 간행된 다라니경

刊行地處		刊行時期·經典名	
北 韓 (19)	平安道(8)	普賢寺(4)	楞嚴經(1682),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8), 隨求成就陀羅尼經(1729), 長壽經(1887)
		閔筆菴(1)	長壽經(1441)
		解脫庵(1)	佛頂心陀羅尼經(1561)
		佛影臺(1)	諸真言集(1688)
		肅川府館北(1)	聖觀自在求修六字禪定(1560)
	黃海道(10)	深源寺(2)	五大真言(1535), 長壽經(1536)
		慈悲嶺寺(2)	楞嚴經(1489), 長壽經(1495)
		長佛寺(1)	長壽經(1420)
		石頭寺(1)	楞嚴經(1547)
		星宿寺(1)	楞嚴經(1559)
		俱衆寺(1)	長壽經(1562)
		松方寺(1)	長壽經(1569)
	咸鏡道(1)	神光寺(1)	英觀世音菩薩靈驗略抄(1732)
		釋王寺(1)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8)

6.2 의식집

6.2.1 경기·강원·충청지역

경기지역 간행의 불교의식집은 26종으로, 王室發願에 의한 7종을 비롯하여 刊經都監, 瑞峰寺, 龍腹寺, 見性寺, 回龍寺, 佛巖寺, 淸溪寺, 重興寺, 望月寺에서 간행되었고, 姜在喜에 의해 간행된 판본이 있다.

왕실발원으로는 「妙法蓮華經三昧懺法」(1472),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禮念彌陀道場懺法」·「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474), 「五大真言」(1485)과 印經木活字로 「眞言勸供」과 「天地冥陽水陸雜文」(1496)이 인출되었고, 刊經都監에서는 「禪門三家拈誦集」(1464),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1462)이 간행되었다. 강원지역에서는 神興寺, 表訓寺, 月精寺 등에서 간행되었다. 충청지역에서는 24종 중 普願寺에서 5종, 岬寺에서 4종, 無量寺에서 4종의 판본이 확인된다. 기타 사찰로 德周寺, 空林寺, 雙溪寺, 伽倻寺, 小馬寺, 廣德寺, 東鶴寺, 講堂寺에

서 의식집이 간행되었다.

<표 21> 경기·강원지역에서 간행된 의식집

刊行地處	刊行時期·經典名
京畿 地域 (26)	王室發願(7) 妙法蓮華經三昧懺法(1472),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禮念彌陀道場懺法·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474), 五大眞言(1485), 眞言勸供·天地冥陽水陸雜文(1496)
	刊經都監(2) 詳校正本慈悲道場懺法(1462), 禪門三家拈誦集(1464)
	龍仁 瑞峯寺(3) 諸般文(1580),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81), 佛說預修十王生七經(1601)
	朔寧 龍腹寺(6)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雲水壇誦詞(1632), 設禪儀·靈山大會作法節次(1634), 天地冥陽水陸雜文(1635)
	見性寺(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470)
	楊州 回龍寺(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36)
	佛岩寺(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73)
	清溪寺(1)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7世紀]
	楊州地 重興寺(1)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1721)
	楊州 望月寺(2) 諸眞言集(1800), 七衆受戒儀軌(1901, 全史字)
姜在喜(1) 戒殺放生文(1908)	
江原 地域 (11)	神興寺(5) 諸眞言集(1658), 顯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61),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1666), 請文(1670)
	表訓寺(2) 雲水壇誦詞·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662)
	楡岾寺(1) 造像經(1824)
	明寂寺(1)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1827)
	文殊寺(1) 茶毘文(1542)
	月精寺(1)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639)
忠清 地域 (24)	瑞山 普願寺(5)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6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諸般文·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66),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577)
	岬寺(4)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607),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22), 僧家禮儀文(1669),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670)
	鴻山 無量寺(4)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498),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29)
	忠州 德周寺(2) 請文(1540),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73)
	俗離山 空林寺(2)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73)
	恩津 雙溪寺(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74), 仁祖 12年 五大眞言(1634)
	德山 伽倻寺(1)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62)
	小馬寺(1)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40)
	華山 廣德寺(1) 佛說預修十王生七經(1564)
	鷄龍山 東鶴寺(1) 佛說預修十王生七經(1577)
瑞山地 講堂寺(1) 地冥陽水陸雜文(1581)	

6.2.2 경상지역

경상지역에서는 전국에서 가장 많은 94종의 의식집이 확인되었다. 특히 海印寺에서는 전국 사찰 중 가장 많은 18종이 간행되었다. 또 通度寺, 雲門寺, 廣興寺, 靈覺寺, 棲鳳寺, 公山本寺, 桐華寺 등에서도 비교적 많이 간행되었다.

<표 22> 경상지역에서 간행된 의식집

刊行地處	刊行時期·經典名
陝川 海印寺(18)	禮念彌陀道場儀法(1503), 禮念彌陀道場儀法(1576),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81),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寶主夢中間答(1624年頃),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41), 雲水壇作法(1664),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94), 大刹四明日靈魂施食儀文(1695), 水壇誦詞·諸般文·茶毘文(1719),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仔變文節次條例(1724), 念佛普勸文年(1776), 茶毘文(1882), 諸般文(1883), 七衆受戒儀軌(1908)
陽山 通度寺(7)	請文(1639),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48), 仔變刪補文·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649), 釋門家禮抄·僧家禮儀文(1670)
清道 雲門寺(6)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15), 雲水壇誦詞·屍多林作法文(1588),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1659), 龍舒增廣淨土門(1799), 禪門撮要(1907)
安東 廣興寺(5)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38), 法界聖凡水陸勝會修齋儀軌(1563), 仔變刪補文(1568),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576)
安陰 靈覺寺(5)	請文(1535),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36),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 佛說預修十王生七經(1720)
昆陽 棲鳳寺(4)	孝宗 7年(1656) 雲水壇誦詞, 孝宗 10年(1659) 雲水壇誦詞·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
醴泉 普門寺(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68), 佛說預修十王生七經(1581)
清道 水巖寺(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31),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632)
智異山 鐵窟(3)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禪門綱要集·五大真言(1531)
安東 鳳停寺(3)	雲水壇誦詞(1643), 請文·詳校正本慈悲道場儀法(1769)
固城 龍興寺(3)	雲水壇誦詞(1644), 請文(1681), 諸般文(1691)
桐華寺(2)	禮懺佛號(1736), 念佛普勸文(1764)
晉州 能仁菴(2)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04)
金海 甘露寺(2)	禪門祖師禮懺儀文(1666), 諸般文(1702)
醴泉 龍門寺(2)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念佛普勸文(1704)
公山本寺(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3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35)
豐基 毗盧寺(2)	禮念彌陀道場儀法(157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73)
海印寺 兜率庵(2)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1869, 1882)
八公山 修道寺(2)	念佛普勸文·臨終正念訣(1741)

刊行地處	刊行時期·經典名
玉泉寺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1496)
七佛寺	現行西方經(1531)
豐基 哲菴	五大眞言(1550)
長壽佛堂	禮念彌陀道場儀法(1610)
慶山 安興寺	靈山大會作法節次(1613)
開慶 鳳岩寺	諸般文(1658)
開慶 裊珊瑚	釋門家禮抄(1660)
雙溪寺	現行西方經(1710)
金海 甘路寺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16)
彥陽 石南寺	五種梵音集(1740)
尙州 金龍寺	造像經(1746)
雙溪寺 修道庵	密敎開刊集(1784)
咸陽 碧松庵	受戒菩薩法(1797)
梵魚寺	禪門撮要(1908)
八公山 夫人寺	禪門祖師禮懺儀文(1660)
雲興寺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1680)
金泉 直旨寺	現行西方經(1448)
公山 圓通菴	五大眞言(1484)

6.2.3 전라지역

전라지역에서는 80종의 의식집이 확인되며 松廣寺(13종)에서 가장 많이 간행되었고, 기타 開興寺, 龍泉寺, 證光寺, 無爲寺 등에서 간행되었다.

<표 23> 전라지역에서 간행된 의식집

刊行地處	刊行時期·經典名
順天 松廣寺(13)	地冥陽水陸雜文(1531), 天地冥陽水陸儀文(153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574), 雲水壇誦詞·禮念彌陀道場儀法(1607), 佛說預修十王生七經(1618),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35), 雲水壇誦詞(1636),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642),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647)
寶城 開興寺(6)	雲水壇誦詞·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51),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請文(1652),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662)
潭陽 龍泉寺(5)	念佛作法·造像經(1575),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諸般文(1576),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93)

刊行地處	刊行時期・經典名
樂安 證光寺(證心寺)(5)	雲水壇誦詞(1636), 佛說預修十王生七經(1641), 釋門喪儀抄(1657),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1), 釋門喪儀抄(1705)
康津 無爲寺(4)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71),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天地冥陽水陸雜文(1572)
求禮 華嚴寺(4)	佛說預修十王生七經(1718), 水月道場空花佛事如幻賓主夢中間答[1721], 准提淨業(1724), 觀音靈課[18世紀]
安心寺(3)	佛說預修十王生七經(1469),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諸真言集(1569)
海南 大興寺(3)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34), 釋門喪儀抄(1656)
興國寺(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660),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665)
順天 大光寺(2)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13),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14)
泰仁 龍藏寺(2)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35)
靈巖 道岬寺(2)	天地冥陽水陸雜文,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655)
谷城 道林寺(2)	天地冥陽水陸齋儀梵音刪補集(1709, 1739)
和順 萬淵寺(2)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640), 諸真言集(1777)
仙巖寺(2)	僧家日用食時默言作法(1661, 1696)
鎮安地 中臺寺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483)
高敞 文殊寺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33)
雙峯寺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562)
千佛山 開天寺	念佛作法(1572)
佛岬寺	佛說預修十王生七經(1575)
實相寺	請文(1610)
花岩寺	佛說預修十王生七經(1618)
鎮安縣 盤龍寺	雲水壇誦詞(1627)
靈光地 隨緣寺	念佛作法(1628)
光州地 兜率庵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35)
南原府 甘露寺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38)
天冠山 般若庵	雲水壇誦詞(1639)
寶城 大原寺	雲水壇誦詞(1639)
茂朱 護國寺	五種梵音集(1661)
順天 定慧寺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663)
長興 宝林寺	僧家禮儀文(1682)
金溝 金山寺	諸般文(1694)
潭陽 玉泉寺	僧家禮儀文(1694)
興陽 楞伽寺	造像經(1697)
禪雲寺	念佛普勸文(1787)
長城 雲門庵	作法龜鑑(1827)

6.2.4 북한지역

북한지역에서 간행된 불교의식집은 32종이 확인되며, 그 중 평안도에서 간행된 판본(19종)이 가장 많다. 주요 사찰로는 普賢寺, 法興寺, 佛影臺, 天明寺, 深谷寺, 靈泉寺에서 간행된 판본이 확인되며, 황해도에서는 興栗寺, 神光寺, 慈悲嶺寺, 石頭寺, 함경도에서는 釋王寺, 靈德寺 등에서 의식집이 간행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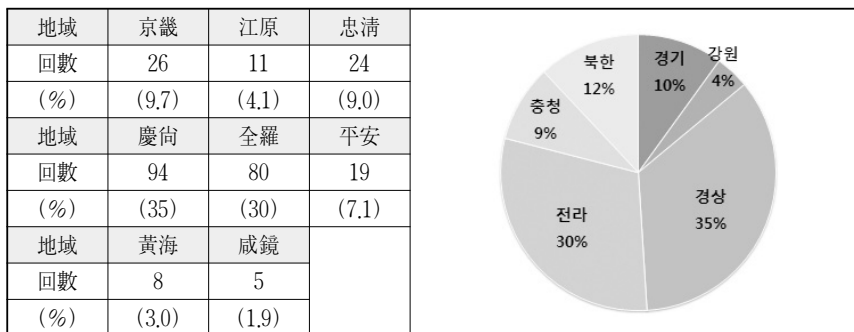
<표 24> 북한지역에서 간행된 의식집

刊行地處		刊行時期·經典名
平安道 (19)	寧邊 普賢寺(11)	雲水壇誦詞(1647)·諸般文, 雲水壇誦詞·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680), 佛說預修十王生七經(1687),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688), 刪補梵音集(1713),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8), 請文(1729), 雲水壇儀文(1732), 大刹四明日靈魂施食儀文(1733)
	順安 法興寺(2)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488), 諸般文(1568)
	寧邊 佛影臺(2)	諸真言集·茶毘文(1688)
	平壤 天明寺(1)	佛說預修十王生七經(1454)
	深谷寺(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61)
	成川 靈泉寺(1) 龍岡 華莊寺(1)	豫修十王生七齋儀纂要(1566) 造像經(1720)
黃海道 (8)	興栗寺(2)	佛說預修十王生七經(1574), 念佛普勸文(1765)
	神光寺(2)	現行西方經(1556),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32)
	慈悲嶺寺(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490)
	兔山 石頭寺(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59)
	佛峯庵(1) 安州 隱寂寺(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86) 三門直指(1769)
咸鏡道 (5)	安邊 釋王寺(2)	諸般文(1574), 觀世音菩薩靈驗略抄(1728)
	靈德寺(1)	水陸無遮平等齋儀撮要(1569)
	咸興 開心寺(1) 咸興 開寺壇(1)	天地冥陽水陸齋儀纂要(1658) 雲水壇誦詞(1659)

이상 267종의 의식집을 분석해보면 <표 25>와 같이 경상, 전라지역에서 전체의 약 65%인 174종이 간행되었다. 이는 두 지역에서 밀교경전의 간행이 특히

많은 것이 아니라 다른 불교경전의 비율과도 대체로 비슷하며 양도에 경전을 간행할 수 있는 대사찰이 많았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된다.

<표 25> 불교의식집의 지역별 판본수와 비율



7. 결 언

조선시대는 역불정책이지만 밀교의 사상적 신앙만은 배척하지 못하고 오히려 더 신봉했으며 이에 따라 많은 밀교경전이 간행되었다. 조선시대 간행된 밀교경전의 대략적 간행을 살펴본 결과 다음과 같은 사실이 고찰되었다.

첫째, 진언·다라니경류는 『佛頂心陀羅尼經』, 『楞嚴經』, 『長壽經』, 『五大眞言』, 『諸眞言集』, 『觀世音菩薩靈驗略抄』 등이 기타 경전에 비해 활발하게 간행되어 보급되었다.

둘째, 불교의식집의 주제별 분포를 보면 水陸齋, 日常儀禮, 獻供儀式, 預修齋 관련 경전이 많다. 이는 사찰에서 가장 정기적·일상적으로 행해졌고, 이에 따라 의식의 방법과 절차가 기록된 경전이 필요했기 때문이다. 이 중 수록재 관련 경전은 전체 불교의식집의 약 32%로 가장 많다.

셋째, 불교의식집을 시대별로 보면 16-17세기의 판본이 가장 많다. 그 중에서도 宣祖-肅宗朝에 간행된 수록재 관련 경전이 현저히 많은데, 이는 당시 어려운

국가 상황과 질병, 자연재해 등과 같은 각종 문제를 풀어보고자 수록재가 자주 행해져 많은 경전이 간행되었기 때문이다.

넷째, 불교의식집을 지역별로 보면 경상·전라지역의 판본이 전체 의식집의 65%를 차지한다. 이는 두 지역의 밀교경전 간행이 특별히 많았던 것이 아니라 다른 불교경전의 비율과 비슷하며 양도에 대사찰이 많았기 때문이다.

다섯째, 밀교경전은 대부분이 목판본이지만 乙亥字, 印經木活字로도 인출되었고, 왕실발원 및 간경도감에서도 다수 간행되었는데 이는 역불 상황에서도 밀교는 국가적으로 깊이 신봉하였고, 경전이 중요시되었음을 보여준다.

이상 밀교경전의 대략적인 간행을 살펴보았다. 여기서 미처 다루지 못한 밀교경전과 경전별 세밀한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참고문헌>

- 南權熙. 『高麗時代 記錄文化 研究』. 淸州: 淸州古印刷博物館, 2002.
- 南希淑. “朝鮮後期 佛書刊行 研究 - 眞言集과 佛教儀式集을 中心으로 - .” 박사학위논문.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4.
- 東國大 佛教文化研究所. 『眞言·儀式關係 佛書展觀目錄』. 서울: 東國大, 1976.
- 東國大 佛教文化研究所. 『韓國佛教撰述文獻總錄』. 서울: 東國大, 1976.
- 東國大 佛教文化研究院. 『韓國密教思想』. 서울: 韓國言論資料刊行會, 1997.
- 東國大圖書館. 『東國大學校 建學100週年記念 古書目錄』. 서울: 東國大, 2006.
- 徐閔吉. 『朝鮮密教思想史 研究』. 서울: 불광출판사, 1994.
- 正覺. 『千手經 研究』. 서울: 운주사, 1997.
- 金賢南. “韓國密教 研究의 現況과 課題.” 『韓國宗教史 研究』 제6집(1996). 5-52.
- 朴泰華. “韓國佛教의 密教經典 傳來攷.” 『韓國佛教學』 第1輯(1975). 45-62.
- 全東赫. “密教의 受用과 그것의 韓國的 展開(1).” 『中央僧家大學』 제2집(1993). 11-37.
- 正覺. “靈光 佛甲寺 佛腹藏 儀式關係 典籍.” 『書誌學報』 제35집(2010). 253-282.
- 鄭泰燯. “韓國佛教의 密教의 性格에 관한 考察.” 『佛教學報』 제18집(1981). 23-60.

